



2002년
3월 15일
제 43호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개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윤철중 http://www.holycc.org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호저2동 373-90 (☎200-091)

제2회 부활절 십자가 사랑행진

십자가체험 부활신앙 확신 예수사랑실현, 소망없는 삶에 부활생명 활력소 제공



춘천시사회운동본부(본부장 윤철중 목사)는 오는 3월 31일 오후 3시 모든 교회 목회자와 신자,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부활절 십자가 사랑행진을 실시한다. 삶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방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한글자 빛을 전해주는 예수 십자가 행진이 될 것이며 각연에 이어 두 번째 있는 행사로서 보

다 실감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또 이번 십자가 체험을 통해 먼저 기독교 신자들이 현실적인 물질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고 소망을 잃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호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였다. 금번 행사는 춘천시 중앙동 명동에서 위치한 동부장로교회당에서 출발 예배를 시작으로 이루어지며 약 50여명의 목사와 기관단체장과 일반 신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군병들의 채찍아래 차례로 십자가를 등에지고 걸으며 체험하게 된다. 행진코스는 동부교

회-중앙로터리-중앙시장-농협강원 지역본부-춘천중학교-버스터미널-이디오아파트건립비-공직선 수변공원까지이다. 행진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대회장 윤철중 목사, 군비위원장 이학규 장로, 총무 이영규 장로, 회계 김원호 권사, 예배위원 한국 목사, 행사진행 경호 목사, 기도위원 유근장 장로, 제무 조은재 허종구 임영일 민병업 명영웅 장로, 전도방송 김철호 간사, 설회보도 조종환 목사 박연희 장로, 사진 김영명 안수집사, 차량감독 김동열 장로 춘천 기사선교회, 시설본부 신종철

안수집사(야외) 의상분장 대학생교회, 동원 시흥도 목사 황병호 박한범 김상록 허광용 임영일 장로, 홍보 진천일 안수집사 등 조직을 두었다. 동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동참하는 교회 또는 개인 후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춘천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 강사 김창수목사, 3·31 새벽 5시 시청광장 -

춘천기독교교연합회(회장 김창수목사)는 금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3월 31일(주일) 새벽 5시 춘천시 시청광장에서 모든 교회 목회자와 신도, 기관단체장 등 2천여명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린다.

는 수석부회장 임신영목사(동부장로교회)의 사회로 권오성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성경봉독 박상호목사(춘천제일장로교회), 헌금기도 황영찬목사(춘천침례교회), 김주환목사(순복음춘천교회), 박승택장로(장로연합회)의 특별기도와 윤철중목사(춘천중앙성경교회)의 축사 등으로 진행되며 부활의 메시지를 김창수목사(신성감리교회)가 전하고 신성감리교회 성가대가 특별찬양을 할 예정이다.

제83주년 3·1절 초교파 연합예배

- 동부장로교회에서 1천여명 성도 3·1정신 되새겨 -

춘천기독교교연합회(회장 김창수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오후 7시 동부장로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연합으로 83주년 3·1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다. 사회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 대표기도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성경봉독 민병업 장로(직장선교연합회) 헌금기도 한 군 목사(평화장로교회) 특별기도 하길철 목사(교역자연합회) 박승택 장로(장로연합회) 동부교회성가대 찬양과 독립선언문 낭독(고길희CBS아나운서)이 있었고 연합회 김창수 목사의 인사말씀과 윤철중 목사(성서화운동본부장)축도를 끝으로 예배를 마쳤다.

신앙으로 돌아가 민족주의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바로 세우는 신앙정신을 되찾아야 할 것이며 3.1운동 당시에 같이 우리 민족의 역사의 중추에서 부흥과 부패, 불신앙으로 쓰러져가는 민족의 삶을 새롭게 주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으며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민족정신을 가다듬어 애국심을 발전한 시간이었다.



▲사진출처: 춘천시사회운동본부(순복음춘천교회)

6685부대 장병합동 세례식 군복음화 진일보

- 강원노회 목사 17인 집례, 장병 305명 세례받아 -



예강합동 강원노회(노회장 이기찬 목사)는 지난 2월 16일 오후 2시 30분 제6685부대 신교대 여호와신교회에서 군목단과 합동으로 장병 305명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거행했다. 장병들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했고 군부사관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군부대는 복음의 황금어장이며 군복음화는 교회의 최우선 과제이다. 장병들의 세례는 계속되어야만 하는 사역이며 모든 교회의 동상이 될 필요있다. 금번 세례식에는 유재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고 형제교회교회 송순오장로 대표기도, 김종현장로 성경봉독, 노회장 이기찬목사의 설교말씀과 세례서약 송광근 군목, 박상호 목사(춘천제일교회)

민족복음화를 향한 민·군연합 춘천대성회

-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고후8:16) -

한국기독교 교단연합회 강원지회(회장 박상호목사)는 오는 4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민·군 교회가 연합해 참석인원 1만명을 목표로 대성회를 준비하고 있다. 동 집회는 전국 지역별로 실시하는 행사로서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교회와 신자들이 대적장과 선교비전

정신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춘천지역을 대한민국에서 본보기가 되는 모델로 제시하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대성회는 오전 10시,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오후 7시, 대중연합 집회(강사 박신희목사) 순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의 세례 후 기도가 있었다. 마칠길 장로가 광고를 진행하고 모든 수혜자들에게 세례증서와 십자가, 위문품을 전했다. 합동축선 임교인 춘천제일장로교회는 오래전부터 군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본은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을 버리기로 시작합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한 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나라와 부대에 충성하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기로 시작합니까?

제4회 춘천지역 교역자·장로 세미나 개최

춘천기독교교연합회(회장 김창수목사)는 오는 3월 28일(목) 오전 11시 30분 신성감리교회에서 모든 교회와 선교기관, 단체, 교역자와 장로, 일반신자들의 화합과 연합, 신앙정신을 위한 1일 세미나를 실시한다. 지난해 3월에 걸쳐 진행했던 세미나를 통해 연합에 대한 일부 애국적이고 발전적이었던 인식들이 많이 해소되어 동기반이 조성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성막에 대한 강의"를 할 것이므로 참석자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새해들어 첫 세미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바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사회: 총무 신재원목사(새천년침례교회) *기도: 부회장 박승택장로(장로연합회) *설교: 임신영목사(동부장로교회) *축도: 회장 김창수목사(신성감리교회) *강사: 갈보리신학교 강동호목사 *▲예배 10:00-10:50 ▲오전 강의 11:00-12:30 ▲오후 강의 13:30-15:00

WWW.biofac.co.kr
강원생식주식회사
- 청정 양구를 생으로 드세요 -



*생식(生食)은 익힌 화식(火食)에 비해 조리되는 적당온도 자연그대로의 영양분을 섭취하여 인체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강원생식 대표이사 임승규입니다. 본인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10여년의 군 장교 생활 후 사회로 진출하였습니다. 나라에 충성할 것처럼 이제는 여러 가정의 평안을 위해 봉사하려고 합니다. 신선함과 청정함을 약속 드리며 먹고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늘 신선한 모습으로 인사 드려드립니다.

강원생식은 특별한 생식이 아니고, 좋은 생식입니다. 최근에 몇몇 조급하고 특별한 생식인양, 선전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강원도 오지 양구 "편지봉" 지역(비무장지대 부근)에서 오리농법으로 계약배 배된 한미와 동결건조한 우유, 표고버섯 등과 보리, 메밀, 울무, 흑미등 20여 가지의 원료를 유기농법에서 공급받고, 다시마, 쪽, 솔잎 등 나머지 원료는 강원도내 농협 등에서 공급받아 생식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30가지종 수입품은 로얄젤리와 비타민C 투입입니다. 음식물의 영양을

97%정도 보존, 화식에 비해 5~6배의 효용을 거둘 수 있습니다.

- 유통마진을 예서, 소비자 가격을 내렸습니다 -
강원생식 40#×60#(2,400#) 가격 = 88,000원
소포장 40#×30#(1,200#) 가격 = 44,000원

강원생식의 특별한 제조공법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섭취방법 1일 1~2회, 1회 1포를 적당량(약 200ml)의 우유 또는 두유나 냉수에 타서 드십시오.
제조원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통마진이 없습니다. 판매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값입니다. 강원생식은 소비자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 "유통 구조 혁신"으로 품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저렴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존 생식을 위한 제품은 40#, 60포 기준 가격에 15만~25만원 정도로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생식은 그리 비싼 이유가 없습니다.
강원생식은 주문 및 판매를 인터넷으로 실시합니다. 주문한 상품의 구매취소는 전화로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품 품질에 대한 하자 발생시 언제든 100% 환불해 드립니다. 모든 제품은 재검정 거부 고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해 환불 및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무채색 백색으로 발송됩니다. 전국 어느곳이나 원하시는 주소, 문앞까지 정확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은 입금확인후 바로 발송이 되며, 주문일로부터 3-5일 이내에 도착합니다. 배송 확인은 홈페이지에서 배송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남면 가오리길 65-1번지 강원생식주식회사
고객상담전화: 033)482-9070-1 E-mail: biofac@biofac.co.kr

세경 볼링 센타



생활체육 볼링지도자

대표 이 용 운

광진장으로교회 집사
춘고(7회), 강원대 행정학과 행정대학원

예약 및 문의: TEL.033)261-6184 FAX.033)261-6185
H.P.018-305-6702 E-mail: skbc2000@hanmir.com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94번지 (지하)

- ★초보자 강습★
- ★상주클럽 운영★
- ★회원제 운영★
- ★체육특기자 육성★

사설

강원지역 교회역사 기록에 동참을 바란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1885년 4월 5일 미국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와 미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에 의해서였으며 1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성장을 거듭하여 5만여 교회가 세워졌고 높은 두레산에 오르면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도 교회역사기록서 한권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전국적인 기독교 역사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작 역사의 주역으로써 직접 역사를 만들고 기록해야 할 교회와 지역(노회, 지방회 등)은 등한시 해왔으며 그 결과, 가지 있는 기록을 사각시키고 있다. 교회건물, 교인수 증가에는 관심을 쏟으면서도 바른 역사 기록은 소홀히 해왔다. 적어도 백년대 이상된 교회라면 후손들에게 남겨 줄 역사기록서 한두권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권하고 싶다. 이제 교회는 역사기록 전달자를 지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통해 역사서 다른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의식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원지역 교회역사 기록이 수개월 전부

터 "호천성시신문" 지상에 연재되어 독자들의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1개 도단위 지역의 초교과 교회역사가 기록되고 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며 전국지역에서 처음있는 일인 듯 싶다. 독자들이 교회역사 기록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깊은 관심으로 기록 내용을 정독하고 발견된 오류를 바로잡아 보완하도록 협조하는 일일 것이다. 강원지역에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곳은 철원군 철원읍 민통선 북방지경터로 알려져 있다. 6.25전란으로 교회 건물은 허물어지고 터만 남아 강원도내 복음선교 역사를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 역사 기록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 등 자료를 보냈더라면 역사기록에 빛을 더하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지경터 교회의 복원으로 강원지역 초교과 교회 역사유물을 전신하여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관계교단이 앞장서고 범교단적인 협력으로 역사적인 사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3·1 정신으로 교회와 사회를 재생하라.

베갯간 나라를 찾으려고 일제에 항거하여 목숨을 걸고 봉기한 민족정신은 3·1정신이라고 부른다면 이러한 정신의 실종으로 윤리와 도덕 가치관이 붕괴되고 부정부패에 짓눌려 사경에 처해있는 나라와 사회를 건강하게 재생시키는 데 필요한 정신을 새로운 3·1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1운동 83주년을 맞아 전국 지역마다 기념식과 함께 독립만세 사건을 재현하는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졌으며 잠시나마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됐다. 애국심은 연례적인 행사나 구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관 회복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 준법(準法)이 유명무실해지고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논리가 일반화 될 때, 그 사회는 먹고 먹는 원한이 가득한 사회가 될 수는 있지만 애국심이 생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교회를 가리켜 국민 정신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자존심을

놓여주는 말이다. 기미독립운동 당시에 보여주었던 교회에 대한 표현이라면 적당하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걸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인들의 애국심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진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국애족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과 구별된 신앙자만의 애국심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애국심은 감옥에서 매질과 고 배임을 당하지 않고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애국심은 실종되고 보이지 않는다. 애국은 한마디로 밭을 잘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오음으로 시민을 사랑하여 오물투기 금지 등 사소한 규정을 지키고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친밀한 708인의 바단이 발표되었다. 지금 강대국들의 행패가 노골화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애국하지 않는 것은 곧 배국일 것이다. 3·1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사경에 처한 나라와 사회를 재생시키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위탁받은 환경보전은 잘 하고 있는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보전의 대인(大任)을 받고 그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된다. 물속에 눈을 뜨면 생명이 되면서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동분서우 할 환경을 함부로 취급하게 되었으며 그결과 병든 자연은 오염물질들 인간들에게 전염시키는 악순환을 통해 자연과 인간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30년전 "UN인간환경회의"에서는 "하루만 지구"라는 선언과 함께 창조질서의 보전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지구의 오염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생사의 기로에 처해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나와 후손들이 죽는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자연을 보호하려면 그것을 잘 아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스로 존중하고 무한한 인간들의 필요충족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여 인적개발을 배제한 결과로서 오염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즉, 자연(自然)이란 명칭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연(自然)이란 문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며 자생력을 가진다는 데서부터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고 따라서 함부로 취급해도 된다는 마음이 짝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된다. 앞으로 자연대신 '피조물'이라는 말을 붙여 자연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운동부터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와 환경은 창조주께서 만든 귀한 존재인 인간과 불가분의 동질성을 지니고 우리와 상부상조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인격적인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충분하다. 환경보전에 불의한 것은 곧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정부와 기업체, 가정과 개인 모두가 지기소임을 다할 때 창조세계는 소생할 것이며 신앙인들은 부지를 회개하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인 환경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선교회 소식 · 교계단신

- **호천성시신학교와 순흥동 담임목사**는 3월 24일(주일) 저녁부터 27일(수) 새벽까지 원주 기현교회(신남목사)에서 심령부흥회를 인도한다. 또, 23일(토)저녁부터 27일(수)새벽까지 본교회에서 훈송우목사를 강사로 초청, 고난주간 심령대부흥회를 개최한다. (☎256-3537)
- **호천성시신학교**와 **박상호 담임목사**는 3월 24일(주일) 본교회에서 장학부 헌신예배를 드린다. 초청강사: 조기신목사(호천제일장로교회) *문의: 241-4361
- **호천성시신학교**와 **최영준 담임목사**는 3월 5일부터 본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관한 회교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다.

호천교계소식

- **초교과 교회 신앙영양대** 호천지역 밀양신교회(회장 홍형철)는 지난 2월23일(토) 호천지방교회(담임목사:김광섭)에서 관내 초교과 교회 연합 신앙영양대회를 개최했다. *주최부: 금상-화계교회, 은상-동부교회, 동상-영주교회, 경려상-양덕교회, 경려상-호천교회
- **호천성시신학교**와 **1/4분기 헌신예배** 호천교 각장신교회(회장: 김창경 의회사무과장)는 지난 3월 10일 오후 3시 호천지방교회에서 신우회 지도목사 김광섭 목사의 설교로 헌신예배를 드리고 이날 모범학생 2명에게 각각 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미자립교회(2)지회 5만원을 각 10만원으로 상당 지원하기로 하였다.
- **남산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호천민간교회(담임목사:양명환)에서는 지난 2월 15~16일 남산초등학교 졸업생 4명에게 장학금 각 10만원씩, 수료생 24명에게 학한 어린이상을 수여하고 앞으로 학생들의 신학 행동과 의로움 생활지도를 위해 매년 졸업생에게 반별 1명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수료생에게는 반별 1명씩 학한 어린이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 **호천성시신학교와 청소년 신앙축제** 호천교 관내 남.여고생들의 성서연구반 모임 "교람대로"(주남당에서)에서는 지난 2월 16일 호천지방교회에서 관내 청소년 400여명을 초청 장막과 음향으로 청소년 축제를 갖는다. 이들은 6년전부터 학교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성서연구반을 구성하고 매년 신추배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복음화와 달신방식 흥신 복음화 및 초교과적 일치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다.

일본인 신도신자 회개하고 예수 영접

호천의 일본문서신교회 김준희 목사는 일본인 구원을 위해 매년 4월과 5월 두차례 일본 현지에서 부흥집회와 개별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 위치한 일본인교회와 일본어 해독이 가능한 국내 회관들에게 일본신도신자를 전하는 문서교를 제공하고 있다. 김목사는 지난해 1주간 일본 나가사키에서 선교집회를 가졌을 때, 일제시대에 호천국민학교를 졸업한 "노구치 도요코"라는 신도신자를 만나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호천국민학교 시절 선생(古人)의 부인으로써 신도신자로 해결되지 못한 영생문제를 예수 믿고 해결받았으며 기뻐하며 현재 신앙간증과 사신을 통해 복음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노구치도요코 여사의 신앙고백: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뜨거운 신앙심을 가지고 겸손한 행한을 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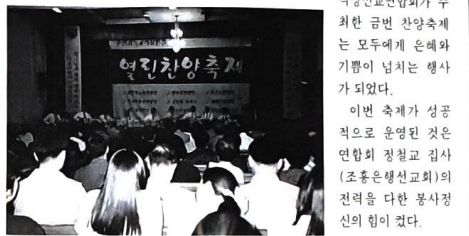


일상의 단상

"여러분! 부자 되세요" 요즘 세 유행어로 등장하는 말이 있지요. '부자 되세요'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복받히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 합니다. 예를들어 어른들의 입가에서조차 쉽게 나오는 입지 말이 되어 갑니다. 최근에 저 역시 마음속으로 '부자 되세요'라고 속삭여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에 소개해 드린다. 예를들면 셋째나 키우면서 장난감 하나 배대로 시준 적이 있는데는 언제부터인가 쓰레기통 옆에 있는 배탈통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생겼지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거의 모두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재미있지요. 약간의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특히 서울에 가면 오세아판타지를 한바퀴 돌아보고 볼일을 보곤 합니다.일전에 저의 눈에 걸려든 장난감이 있었지요. 꽤나 낡았지만 보이는 데, 리모콘으로 조정해서 움직이는 자동차였습니다. 물론 리모콘은 없었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세 리모콘을 구해서 자동차를 시험해 보고 애들에게 주고 싶었지요. 그러나 구할 방법이 없어서 자동차에 붙어있는 회사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요. "어떻게 하면 리모콘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음 때, "자동차를 보내주시면 리모콘을 맞춰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는 친절한 안내가 있었습니디. 리모콘이란 없애기 아니고 자동차에 문제가 있으면 때때 값과 리모콘을 날려보낼 위험도 있지만 한번 보았하기로 하

호천 직장선교연합 열린찬양 축제

호천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민병업장로)는 3월 16일 오후 6시30분 호남감리교회 본당에서 1백여년 기념 축하와 함께 45개 직장선교회 및 교회에서 선발된 11개 찬양단이 출연하여 회원들의 가족,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는 열린찬양 축제를 가졌다. 찬양대는 1부 예배, 2부 찬양으로 나뉘어 열렸으며 연합회장 민병업 장로의 시회로 권오서 목사(중앙감리교회)설교, 호천기독교연합회장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의 축사 그리고 조충환 지도목사의 기도로 찬양축제를 마쳤다.



직장선교연합회가 주최한 금번 찬양축제는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행사가 되었다.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은 연합회 장로 김사(조흥은행신교회)의 전력을 다한 봉사정신의 힘이 컸다.

Manna

두 주 인

개 한 마리가 두 사람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는 그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릴에 이르러서 한 사람은 이 길로 또 다른 사람은 저 길로 가는 바로 그때 당신은 그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면서 신앙고백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갈릴릴에 이르러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부르고 세상을 저 길로 부를 때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는 세상을 버리고 신앙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주인이 세상이라면 그는 하나님과 양심과 신앙을 버리고 정욕을 따를 것입니다. (이스카인/샘물원지)

강원지역 청소년연합 선교대회 성료

- 주여,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옵소서! -

예수사랑운동(대표 박상복목사)은 지난 3월 9일(토) 오후 6시 호천동부장로교회에서 제5회 강원 청소년연합 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강원지역 청소년들의 복음화를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홀리키즈(HolyKids), 200명의 호천지역연합선교가대를 비롯해 청소년들과 각 교회 고등부, 대학청년부 학생들 1천여명이 대거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예배 설교에서 박상복 목사(제일장로교회 담임)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마음의 간증

사 랑

김희자 집사(호천제일장로교회)

사람은 주는 것이다
사람은 받아만면 얼마나 기쁘지 몰라
사람은 능동과 감사가 있다
사람은 사랑과 연이 있다
사람은 거절이 없고
사람은 신령으로 맺어진단다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하고
사람은 열매를 가지야 하고
사람은 동행하는 길을 알아야 된다
사람은 순종해야 하고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으로 감싸주고
사랑하면 다 아름다운 것이니
사랑하면 다 아름다운 것이니
사람은 모든 허물을 벗을 수 있다



가난한 자에게 임한 참된 부(富) (눅6:20)



변석국 목사
춘천신원교회

지난달은 슐트레이크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빼앗긴 김동성 선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흥분했던 것 같다. 전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축제가 마치 제국주의의 힘을 마음껏 과시하기 위한 연극으로 전락해 버린 느낌이 들었다.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에서는 남아프리카 기니 출신 무삼바니를 위원회에서 100m 수영 경기에 초청한 바 있었다. 그런데 무삼바니는 50m 이상은 헤엄쳐 본 적이 없으니, 수영 선수로 할 수 없었다. 반바지 수영복 차림에 '개레임'을 차기며 단

변에 완주할 수 없어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그를 위해서 청중들은 아낌없는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게다가 무삼바니는 담배도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금메달을 위해 헤엄치는가? 나는 익사하지 않기 위해 헤엄을 쳤다. 당신들의 뜨거운 갈증이 없었으면 끝까지 헤엄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포옹과 키스를 보냅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연극이 아니겠는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비슷한 연극이 있었다. 눈 위에서 연습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선수들, 기본기술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아프리카, 남미, 내륙 출신' '왕초보' 다섯이 코스컨트리 10km 추월경기에 도전했고, 열면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쇼트트랙에서 할리우드 액션으로 감쪽소를 한 안토노우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 주고 관중들은 환호하며 국가적 경사라고 떠들대는 처사가 올림피아 정신이

는 절망과 슬픔의 '개레임'을 집어던지고서 말이다. 한 개의 메달이라도 더 빼앗아 민족적 자긍심과 기쁨을 만끽하려는 가난한 소년들의 치졸한 행위를 보면 흥분하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한다.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남의 것을, 다른 나라를 빼앗고 짓밟으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는 않는다.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빼앗고 파괴하고 정복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적 확장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한 것이 아닐까? 가지고 빼앗지 않으면 세상의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가난함에 대한 비밀을 무리들에게 가르쳤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할리우드 액션을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늘의 보좌와 보물을 포기하고 가난에 처하고 민중의 아픔에 동참함으로써 진

정한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렇다면 현실의 가난을 무시하고 찬미하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기를 원하신 것이며, 가진 것이 있다면 물질에 의해 영혼이 지배되지 말고 이웃을 위해 절반을, 아니 모두 팔아 나눠주라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물질적 파산 상태에 처해 있다면 자라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하늘의 보좌(천국)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내 것은 무엇인가? 내 것이라 함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맘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대로 한다 할 자라도 죽음의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 것이라 할 수는 없으리라. 죽어서까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천국복음인 것이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주님께서 포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지려고 투쟁하는 어려움이 부자가 아님에 더욱 감사한다.

신앙인의 마음

신앙인의 기본자세란



장국광 수필가
전, 강원도의지 전문위원

"평소에 워낙 건강하고 자상하던 분이래 예까지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그저 하자는 대로 좇아만 왔는데 그러던 이가 갑자기 심장기의 핏줄이 막혀 의식을 잃은 채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땐, 만약 저기가 잘못되더라도 한다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갈 수 있을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남원이 심장수술까지 한 후에 부부가 TV의 한 토크쇼에 나와 이렇게 말한 부인의 얘기가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부인의 심정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다. 남원이 이 죽었다면 매겨야 할 어려움이 실은 더 큰 걱정거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은 위험한 생사 기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남편을 먼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이처럼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행은 당한쪽 보다 멀었던 자신부터 먼저 걱정하는 우리들의 사고체계가 이런 거꾸잡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우리들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매사서 문제나 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온연한 자신들의 관점에서 형량한 후 후에 그 영향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는 일은 자연히 길게 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만 간다. 매사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온전히 바로 이기주의가 배설화한 까닭이다.

이 이기주의는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며 한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문제조차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먼저 부모가 중심에 서서 타고 난 자녀들의 소질을 죽이거나, 아예 비틀게 나가는 단초를 만들기

도 한다. 이런 행위는 정치 경제사 문화 종교와 같이 우리들의 삶 전체에 만연되어 있다. 어쨌든 자유스러운 것이 없다. 적개적소의 원리인 기본인치는 어느든 이기(利己)적 행태의 산실처럼 이해되고 있고 정말 사심이 없어야 할 국가 경영에서조차 부역된 공직적 권한이 사익에 동원되는 사례는 갈수록 심하다. 환경 문제는 그 사익비율과 비례하여 점점 나빠져만 가고, 기능보다는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온 사회가 합심한 듯 양기왕만 걸려내는데 정신을 쏟고 있는 듯 하다. 별로 쓸데없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우리 사회의 한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으로 고칠 노력도 기다려 보는 희망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나라 안 밖 어느 한곳 성한 데가 없다. 이제 모두 이기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사람이 먹고사는 일에서 용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장은 위험한 생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신앙인들이 겪어가는 사회적 사건에서는 고사하고라도 어쩌면 홀바르게 살아 갈 권리의 길을 찾는 신앙마저도 이타(利他)가 아닌 이기가 바탕이 되어 기복사상을 중심으로 두고 있거나, 더구나 삶을 통해 당면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두조근 실천해 나가야 할 사람의 실천마저도 온연한 자신을 중심으로 두어 기복주의적인 실천이 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의 일은 일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그 각 자체를 중심으로 두어 정제대로 사실을 꿰뚫어보는 안이다.

더욱이 끝내 영혼이 되어 하늘까지도 날아갈 열망은 인간 자신까지 끌어들이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신앙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인류가 그나마 자연의 일부로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자유 종교 한 또 하나의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천주교는 개신교나 타종교와 공존공영 할 수 있는가?



이영규 장로
석사신학교
춘천천주교연합회 총무장

천주교의 교리문답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 (문) 천주교 밖에 구원이 있는가?
- (답) 천주교 밖에 구원이 없다.
- (문) 천주교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답) 천주교 밖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받지 않은 비신자들과 천주교의 교리를 일부러 믿지 않는 열교인들과 천주교의 최상목직권을 배척하는 이교도들과 파문받은 자들을 이다.

즉, 천주교의 교리문답서를 보면 구원은 오직 천주교에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와는 물론 타종교와 공존공영 할 수 없는 종교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종교를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10억의 신도를 거느린 세계 최대의 종교, 천주교는 말과 글이 '인류구원'이란 대목표를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과거에 인류를 전쟁과 종교계판으로 괴롭힌 조직체였다.

사람이란 간판을 내걸고 뒤로는 잔인무도한 질박과 살상을 자행한 사실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천주교의 모든 추기경과 주교들이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에는 이렇게 한다. "나는 교황과 그 후계자에 대하여 이단과 분열과 반역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복권을 다하여 반대하고 배척하겠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충성 맹세에는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이단들을 반대하고 배척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

-세인트루이스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다. "이단과 분리는 죄악이다. 예를 들면 이태리와 스페인처럼 국민 모두가 천주교인이며 또 천주교가 그 국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크리스마스도 국가에 있어서 이단과 분리는 범죄와 같이 처벌될 것이다."라고..... 이처럼 이단과 분리는 개신교도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천주교는 가끔 개신교를 형제교회라고도 하였고 또 두터운 종교개혁을 한 것에 대하여는 자기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는 교황의 선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황적인 하나의 게스처일 뿐이며 실제로 있어서 천주교의 정책은 옛날과 별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실로 천주교는 신교와 복음전파라는 미명하에 살인단체의 역할을 하였고 문화와 문명의 파괴자였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성직자들의 생

의(聖衣)속에 어찌된 그런 치(齒)발리는 독성이 숨어 있었을까? 비인간적인 잔인무도한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타인종, 타문화, 타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이 일단 성전(聖戰)이란 이름을 갖게 되면 잔인한 살상도 신의 명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있을 수 없다. 그러한 성전을 천주교는 과거 수백년 동안인 "종교재판"으로, 또 200년 동안 "십자군출동"으로, 또 30년 동안 "개신교박멸전쟁"으로, 그리고 계속 여기저기서 수없이 크고 작은 성전을 자행해서 유럽전지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고, 개신교, 유대인 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천주교는 살로 성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종교였는가? 이와같이 천주교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화평과 행복과 번영을 주지 못하고 반대로 인류에게 불행만 안겨 준 역사가 가지고 있다. 실로 천주교는 상당 기간 그들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음을 절감하게 되는데 있어도 있다. 천주교가 개신교나 타종교와 공존공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264대(2000년 현재) '페드로'를 계승하였다는 교황권의 독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타종교는 물론과 같은 성령을 날아 다녔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개신교는 구원이 없는 사교로 취급하여 공존할 수 없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멸시하고 배척하여 박멸정책을

그간 전개해 왔다.

그러던 천주교도 세계 종교 정세를 관찰하고 타종교와의 공존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한 중거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1960년 바티칸 제2공의회에서 "세계종교단일화운동"을 시작하여 이후 타종교와의 교단교류사업 시작하였고 1986년 10월 27일에는 이태리 천주교 성지로 알려진 아제시(Assisi)에서 전 세계 40여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국가와 종교를 초월하여 인류 평화와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어 1993년 8월23일 시카고에서 '세계종교회의'를 열고 불교, 힌두교, 회교, 유대교, 뉴에이지교, 무당, 개신교, 천주교 등이 모여 "지구종교연합"을 채택하였는데 이 연합은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각 종교는 각자의 편협한 태도를 버리고 자기종교의 특성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같이 교황청에서는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과의 공존공영(共存公營)을 향하여 일한 진전을 하고 있고 음에도 불구하고 하부 사제들의 타종교에 대한 태도나 사고방식은 아직 옛날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듯 하다. 하부 사제들의 독신과 우월성은 여전히 타종교, 타문화에 대한 멸시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무엇 때문일까? 오랜 전통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가 어려워서일까?

-조한철 지음 "기독교 회개서"에서 발췌-

신앙성장의 3대원리



정경호 목사
춘천 C.C.C 대표

자녀에게는 일정한 생명성장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자연적인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성장하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의할 때 "같이요, 진리요, 생명"(요14:6)이라고 말씀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복음을 "씨"로 비유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예수님을 생명의 씨로 심었을 수 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를 영적 생명이라 한다. 영적생명이 성장하는 데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 영혼의 생명도

성장의 조건을 갖추어 주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신앙성장의 3대원리는 성경공부와 기도, 그리고 순종이다. 첫째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본문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여 나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둘째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화는 양방향이고 주고 받아야 한다. 성경공부 없는 기도는 일방통행이 된다. 성경은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데 나는 미워한다면 올바른 대화 할 수 없다. 대화는 진실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경행력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진실한 대화는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는 진실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순종이다. 성경을 공부하

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행편과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대화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때 내 뜻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도록 권면하는 열매들이 식기에는 신앙성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순종의 자세이다. 순종에 대해 강조하고 한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 주셨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종중하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다. 십자가의 행위는 인간이 고난을 낸 가장 진정한

사행법이다. 주님은 갓세대에 동산에서 기도 중에 십자가 고난이 지나가도록 원했지만 하나님대로 되길 기도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원을 쓰셨다. 인류 구속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희귀의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이다. 우리는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한다. 그러나 열매없는 신앙생활에는 희귀의 열매가 없다. 신앙성장의 원리는 열매에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병들어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신앙인은 필연적으로 성장하여 두 종류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첫째는 내 자신이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다. 인격적 성숙을 통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성이 되기까지 자라는 것이다. 둘째는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신앙성장의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경공부와 기도, 순종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춘천 기독교 직장인 정오예배 안내

일시: 3월 26일 화요일 12:00(예배)~12:35(식사) 장소:동부망로교회
설교: 유진형 목사(남천신학교)

사회:안내: 춘천신학교 기독교복음: 강원도교육청 선교의 일인

일시: 4월 30일 화요일 12:00(예배)~12:35(식사) 장소:동부망로교회

설교: 박성진 목사(제일신학교)

사회:안내: 한민대학교 선교 기독교복음: 강원대학교 선교의 일인

춘천기독교직장인연합회 정오예배위원장 강성훈 H.P. 019-387-7110

(연합회비납부) 조흥은행 515-04-574117 예금주:안영자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적인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약한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약한 사람들을 청천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다. 바로, 그 약한사람들이 평소에 익힌 말을 어떤 바로 그 청천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청천한다. 이런 것을 보고 분노하던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윗사람이 벌어지고 있다. 약한사람이 받아야 할 복을 억압이 받는다. 하인, 억압이 받아야 할 복을 억압이 받는다. 하인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두루,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아볼 수 없다. 혹 저해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전도서 8월 발표(표준본역)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 강원지회 창립



박상호 목사
군선교연합 강원지회장
군선교연합 강원지회 창립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춘천제일강로교회 예배실에서 강원지회 창립예배를 드리고 합창을 출발했다. 동 지회는 춘천, 화천, 철원, 인제, 양구, 홍천(육군2군단, 76사단, 15사단, 27사단)지역에서 전도, 복지, 교육, 건축시설, 정책, 회원확보 및 홍보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비전 2020사업으로는 ▲사단신교대 PC부교(군인신자 명단 수집, 군인신자 연결) ▲실무교육, 관리실 태 점검(군선교회연합회:미래술서 교인양육) ▲자제강사(교단)육성(도명교회육성) ▲신규동원으로 군선교회연합회 확보사업을 통해 모든 교회의 동향하여 군복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강원도내 여타 군부대의 복음화는 동부지회, 영동지회에서 담당한다. 박상호 지회장은 "군부대에 그들을 던져라"는 메시지에서 군부대는 20대 젊은이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영혼의 황금어장

이며 이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바로 교회의 몫으로 이를 위해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군복음화 사업의 창범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강원지회 사무실 연락처: 033)241-4361~3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임원조직
△지회장 박상호목사(춘천제일강로교회) △총무 김영민목사(우두강리교회) △합동총무 박태원목사(춘천강리교회) △경용심목사(군인신자) △감사 임신영목사(춘천동부강로교회) △서기 원창상목사(춘천제일강로교회) △사무국장 아철규목사(춘천제일강로교회)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이사조직
△이사장 김장수목사(신성강리교회) △부이사장 김광국목사(성광강로교회) 김주환목사(순복음춘천교회) 이원호목사(소양강교회) △이사 강태운목사(칠원제일교회) 권오사목사(춘천중앙강리교회) 권오원목사(홍천교회) 노정기목사(신성강리교회) 박경훈목사(대대교회) 박용호목사(양구강리교회) 황영찬목사(춘천침례교회) 박원복목사(칠원강리교회) 연대성목사(한빛강로교회) 유진형목사(남춘천강리교회) 이경재목사(신원제일교회) 조기산목사(홍천제일교회) 전은중목사(춘천제일교회)

고백역사

강원도 기독교전래약사【略史】(9)

- 원주권(原州, 橫城, 寧越, 平昌, 旌善)을 중심으로 -

김기태 장로(전, 삼척시도장)

① 원주는 강원도 의료선교의 요람(搖籃)

본고 제1호(本稿 2001.4.15일 제32호 4면)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선교는 "학교와 병원사업"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1884년 미국 감리회에서는 학교사업을 위하여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스크랜턴(MF. Scranton: 이화대학설립자)대부인을, 병원사업을 위하여 스크랜턴(WB. Scranton: 이화대학 창설자의 딸)의사를 선교사로 선발하였고, 미국 북장로회에서는 언더우드 목사와 알렌(HN. Allen)의사를 파송하여 알렌은 제중원(濟衆院: 1885년 4월에 설립, 처음에는 廣惠院, 한국최초의 의료기관으로 후일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명됨)을 설립하여 의료를 통한 선교를 하기에 감리회의 스크랜턴이 이곳에서 잠시 일한 후 1885년 6월 서울경동에 진료소를 개설하였다가 "시(施)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설치하였고 후일 보구여관(保救女館)이라는 여성선교의 병원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이무렵 서울중심의 선교가 지방으로 확대되고 의료선교도 함께 이루어져 강원도를 향한 선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에 인접한 강원도는 대략 5대 거점(據點)

지역으로 북음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1)원산을 중심한 선교 2)철원을 중심한 강원 북부지방 선교 3)춘천지방을 중심한 중부지역 선교 4)원주를 중심한 선교 5)강릉을 중심한 동해안 선교, 이러한 구분으로 살펴보면 원주지역의 기독교 전래는 다른 지역보다 늦은 1905년 4월에 원주읍 교회가 설립되었고 강원도와 충청도의 중간지점인 원주에 의료선교사가 파송되었다. 1912년 덴더슨(AG. Anderson, 安宣宣)의사가 선교사로 부임하면서 미국에 있는 '귀두교'의 도움을 받아 1913년 11월 15일 원주시 일산동에 현대식 병원건립을 위한 시설을 갖춘 원주병원을 준공하고 '서미감병원(瑞美監醫院)'이 국내에 있는 스웨덴감리교회 도움으로 지은 교회라는 의미부터)

원주를 중심으로 형성 평창 정선과 제천 충주등지로 선교영역이 점점 넓어져 원주지역은 교회성장의 본이되는 지역이 되었다. 1909년 원주에 미감리회 선교부가 설치되었고 1913년 병원선교가 실시되었고 1980년 감리회 동부연회의 본부가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어 원



주는 명실공히 강원도 감리교단 행정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원주지역의 타교단 진출은 자연스럽게 늦어져 1933년 성결교단, 1946년 장로교(통합측), 1951년 침례교단, 1969년 그리스도교단, 1971년 순복음교단, 1974년 구세군교단 설치, 그 이후 여러 크고 작은 교단과 교회가 설립되어 강원 영서권의 기독교의 선교가 뿌리깊게 자리 잡히게 되었다.

② 강원 남부지역의 교회성장

(필자가 임의 설정한 기준)으로 형성,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의 기독교 교단과 교회성장을 조망(照望:자세히 살펴봄)해보면 다음과 같다. 형성강리교회는 1906년 4월 6일 미국선교사 모리스 부부의 선교로 교회창립을 보게 되었

고(형성90년사 참조) 평창제일강리교회 90년사(2000년10월 김진영목사가 考證하고 김필)에 의하면 평창강리교회의 설립은 구전(口傳)에 따르면 1908년이라 하고 미확인 기록에는 1912년이라 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살펴볼때 1910년이 근사하다고 기술하였다. 영월중앙교회는 1912년 3월 1일을 창립일로 하고 있으며 정선강리교회는 1913년 9월 17일을 창립일로 하였다. 각 교회의 역사기록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점은 앞으로 계속 자료 발굴을 하여야 하며 상기 교회들에 관한 자료를 참고로 인용한다. 이 지역에 설립된 원주교회는 모두 일제강점기 또는 해방이후 창립일증으로 기록을 생략한다.

[1914년 6월 서울동계제일교회에서 모인 제7회 조선 미감리교회 연회회의록을 살펴보면 「학원부」 1. 어느 원주지방 감리 사. 1. 오.....원주읍교회, 2. 형성구역 목 사. 1. 오라고 지방교의 담임자 파송의 기록이 있으나 평창과 정선은 이름이 없었고 다만 1911년 부임한 원주 지방 초대감사 박원백 목사가 보고한 내용 「학원 회의부 원주로 내려가서 여주, 형성 각 교회를 7월에 순방하였고... 10월에는 형성, 평창, 정선, 영월을 순방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다음호는 강릉을중심으로...)



1912년 원주 서미감병원, 후에 선교사 사택으로 사용되었다.



3·31 부활절과 함께 새 생명의 봄을!

부산 성시화신문 3월 창간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정필도목사)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성시화 사업을 추진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시민의 삶을 선도하기 위하여 부산성시화신문을 창간했다. 1998년 9월 창간된 춘천성시화신문과 대구경북성시화신문에 이어 3번째로 발행되는 부산성시화신문 창간을 축하하며 앞으로 각 도시의 성시화운동본부들이 신문을 발행하여 전국적으로성시화 운동이 확산되어 사회를 선도해 나갈 것을 기대한

제61회 감리회 동부연회 춘천중앙교회에서 개최



박상혁 감독
(동부연회)



권오서 목사
(춘천비전)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박상혁 감독, 원주태강교회시무)는 제61회 연회를 오는 4월 9일(화)부터 11일까지 춘천중앙교회에서 개최한다. 강원도 22개지방 감리회와 목사, 장로 및 평신도 대표 1,400여명이 모여 목회사역자들의 고성과 자질을 심사하고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하며 재정위원회 등 18개 분과위원회의 비로 2002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감리회는 전국 시도별 9개연회와 미국연회가 있으며 이중 동부연회는 가장 역사가 오랜 연회로서 교회사 582개, 목회자 732명, 교인수 11만명이다. 이번 연회를 위하여 연회공천위원(박상혁 감독, 정용진 목사, 김형재 장로, 김기태 장로 등)들은 권오서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연회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동부연회 감리교인들의 축제 행사가 이렇듯 록 당부하였다.

교육자선교회 춘천지역회장 김종열 장로

한국교육자선교회 춘천지역회는 2월 23일 오후 5시 총회를 개최하고 제3대 회장으로 김종열 장로(유봉여교 교장)를 선출하였으며 부회장 및 기타임원 전원 직 회장으로 위임키로 했다. 동 선교회는 추 초,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펼쳐나가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 춘천 성시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회장 김종열 장로 총무 서대식 장로(상촌초등학교)

가평 이화교회 청년교사 모집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이화교회(김경민 담임목사)는 가평 이화회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교회입니다. 저희 이화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성실성령의 가르치고 봉사해 주실 청년교사를 모집합니다..

- ◆ 자 격 : 신앙교육에 열정을 가진 청년 (※ 단, 개인차량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분)
- ◆ 교육기간 : 매 주일날
- ◆ 교육대상 : 이화교회 어린이와 청소년
- ◆ 사 례 비 : 월 10만원
- ◆ 신 청 : (031) 582-0909 김명진 목사

믿음과 기도로 치료하는
영광한의원

진 료 과 목

내과 · 소아과 · 부인과 · 침구과

원장 이 용 규 장로

춘천시 후평2동 801-2번지
TEL.(033) 251-2003~4

베드로 선교센터

정형외과 · 신경정신과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 조은제 장로

신경정신과 전문의 기 정 희 권사

춘천시 효자2동 312-1번지 베드로병원(법원앞)
TEL.(033) 253-5171

취미생 전문 미술학원
김춘배 화실

대표 김춘배 집사

춘천시 석사동 644-4

TEL. 261-6573 / 018-336-6573

EBS영상독서실 추천점

대표 정 치 응 집사

농림 강남동지점 위 상이군경회관 건물4F

TEL. 243-7288

주식회사 유 성

토목 · 건축 · 공사업

"성령의 불길로 추천을 인도하소서"

대표이사 신 종 철 안수집사

(춘천CBS소년소녀합창단 단장 춘천율리클림 총무)

TEL (033) 435-5103~4(통선)
262-5504(춘천)
FAX (033)435-5102

알로에는 자연입니다
알로에마임기초, 색조화장품 · 건강보조식품
메이크업교실 · 다이어트식품

대표이사 이판호 권사 윤영순 집사

춘천시 효자3동 756-3번지 보현초침례년
TEL (033)242-2655~6